어 른 용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

말레이시아 복음주의협의회(NECF) 40일 금식과 기도 • 2014년 8월 7일-9월 15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18)

40일 금식과 기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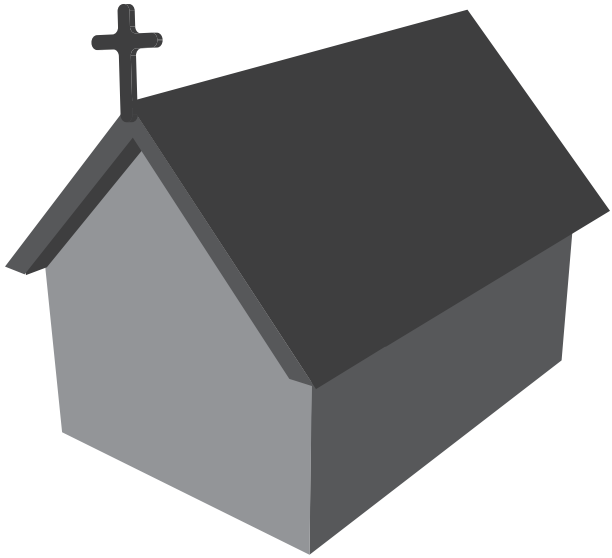
(8월 7일 – 9월 15일)

감사의 글

이 기도책자가 나오기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형제, 자매님과 목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Josh Yeoh형제, Carolyn R. Boin자매, Wong Young Soon형제, Joyce Thong자매,
Phillips Koh목사님, Karen Tan목사님, Chan Ah Kee목사님, Loh Soon Choy목사님,
Voon Yuen Woh목사님, Paul Chen목사님, Dr Lim Yeu Chuen목사님,

특히 편집을 맡아준 Debbie Loh자매의 신실한 사랑의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목 차

	머리말	P6
8월 7일 – 10일	그리스도의 교회 – 그리스도의 신부	P7
8월 11일 – 17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통한 성숙	P11
8월 18일 – 24일	교회의 시련과 고난	P18
8월 25일 – 31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하나됨	P25
9월 1일 – 7일	열방을 제자삼는 교회	P32
9월 8일 – 14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P39
9월 15일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힘	P46

내 교회를 세우리니

머리글. Eugene Yapp
말레이시아 복음주의협의회(NECF) 회장

2014년의 말레이시아를 위한 40일 금식 기도의 주제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 16:18)입니다. 올해로 14해째를 맞는 이 기도운동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의 시련 이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 순종해야 함을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변화와 선한 일을 우리 민족과 사회에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레이시아를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은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꾸준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성실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역경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교회는 믿음 위에 굳게 선 교회입니다. 또한 분별력 있는 기도를 위해서는 겸손히 주님의 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먼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준비되고 사람들을 제자 삼을 때 진정한 영성은 우리의 내면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간증은 생생해지고 우리의 나눔은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책자의 중요한 주제중 하나는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는 하나됨입니다. 말레이시아가 많은 과제에 직면한 이 시점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한 몸됨의 연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연합은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온 진리와 정의와 의로 제자 삼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이 책에 실린 주제들은 기도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기도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자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고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빛과 축복의 통로로써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말레이시아를 축복하시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약성경은 교회에 대해 다양한 비유를 사용한다. 특히,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표현하기를 좋아했다(고전 12).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했고, 그 자신을 "신랑의 친구",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였다(요 3).

신랑의 친구로서 세례 요한은 모든 이들이 예수님만 주목하기를 바랐다. 세례 요한 자신에게도 따르는 무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에 동요하지 않았다(요 3:26). 오히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것을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이다(요 3:29). 오스왈드 샌더스(J. Oswald Sanders)는 그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 "결국 모든 제자를 예수님께 빼앗겨 버린 설교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주된 관심사는 그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것이었다. 그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11:11)"라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와 같이 말레이시아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 또한 항상 세례 요한의 겸손한 마음을 품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당신은 예수그리스도만이 밝게 빛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주목 받기를 원하는가?

기도 제목

- 말레이시아와 전 세계 교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 교회간의 긴밀한 동역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도록
-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모든 믿는이들의 삶의 목표가 되도록

그리스도안의 하나됨과 사귐

에베소서 5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며 신부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한다. 사도 바울은 남녀가 결혼을 통해 "한 육체"가 되는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도 적용하고 있다(엡 5:31-32).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루는 영적인 친밀함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엡 5:32).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러한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신비스런 교제를 맛볼 수 있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볼 수 있었던 영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사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살짝 맛보게 되는데, 더 큰 영적인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하늘 나라의 어린양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질 것이다(계 19:7). 이 영광스러운 일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기쁨이 될 것이다.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의 신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
-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영적 연합과 교제를 이루는데 우리 각자가 모두 힘쓸수 있도록
- 천국에서 이루어질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쁨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신부의 준비

어떤이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열명의 처녀 비유로 빗대어 말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마 25). 예수님이 맞이하시는 것은 열 명의 처녀가 아니라 바로 열 명의 신부라는 이유이다. 이 비유를 단지 영적이거나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열 명의 처녀는 신부이기 전에, 결혼 잔치에서 신랑을 고대하는 초대받은 이들임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신랑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적 신부인 이 땅의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 친히 오신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부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결혼 잔치에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열 처녀의 이야기를 사용하셨다. 다섯 명의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억하며 잘 준비해서 지혜롭다고 여겨졌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해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는 변명거리가 되지는 못한다. 늦어짐에 대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주의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요즘은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활발히 일하는 교회보다는 영적으로 깊은 수면상태에 빠진 교회를 찾기가 더 쉽다. 이러한 영적 무감각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이 항상 깨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기도 제목

- 천국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가 먼저 잘 준비하도록
-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벧후 3:14)
-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에 활발히 동참하도록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헌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는 것을 뚜렷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 언급하는데 이는 그들이 오직 한 분이신 신랑 즉, 그리스도와 약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신부로서 마땅히 고린도교회는 영적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진실하고 순결해야 한다(고후 11:3).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묘사를 마태복음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매우 당혹스럽고 처참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가 정절을 지키지 못한 대가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면할 수 있도록 그녀와 조용히 파혼을 하려 했다. 요셉은 모든 약혼자가 그러하듯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결혼 전까지 정결함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오직 남편에게만 헌신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결국에는 파혼을 만류하기 위해 주의 천사가 나타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 된 것을 요셉에게 알리게 되었다(마 1:20).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함을 듣고 괴로워함이 당연한데, 영적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대체 어떠실지 상상해보라. 결국엔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자.

기도 제목

- 고난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그치지 않는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 그의 신부를 속량하기 위해 결국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마음에 깊이 와 닿도록
- 물질주의와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시험을 이기는 친밀함

창 22: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혹독하게 시험 받았다. 그것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기초한 것임을 창세기 17장 2-8절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칼 끝이 그의 소중한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직전까지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정도까지 시험 받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과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시험과 시련에 반응하는 태도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한 경험들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약 1:12). 이는 혹독한 시험 가운데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로 그의 자손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 또한 충만해지도록(엡 3:18-19)
- 좋든 나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욥 2:10)
- 힘든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 은혜와 이겨낼 힘을 주시도록(욥 1:22). 고난을 승리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친밀함에 우선순위를 두라

누가복음 10:42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예수님을 사랑했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를 잘 보여준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정성껏 대접함으로써 예수님께 경의를 표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마르다는 여러가지 손님을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다고 한다. 그녀는 너무나 많은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분주한 상황을 만드신 예수님의 방식이 맘에 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주님의 일은 오직 한가지뿐이라고 말씀하시며(눅 10:42) 그녀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고 지적하셨다. 그에 반해 마리아는-접대하는 일을 거들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과 주의를 주님께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급박했기에, 예수님의 발치에서 떠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다(눅 10:39).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삶의 우선 순위를 점검 해 보아야 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위로 여겨지는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나 쇼핑하는 시간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보내고 있는가?

기도 제목

-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묵상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친히 가르쳐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자.
-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워 낮아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지친 영혼이 쉼을 얻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친밀함

요한복음 15:5-8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아름다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다.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는 포도나무 가지는 그 나무를 쏙 빼닮았다고 한다. 오직 다른 점이라면 포도나무는 크고 강하며 힘의 근원이 되는데 비해, 가지는 작고 약하며, 힘을 필요로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가지는 절대 포도나무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포도나무는 가지에게 생명, 물, 양분을 준다. 하지만 가지는 자기가 받는 것을 포도나무에게 줄 수 없다. 이처럼,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분을 닮아가야 한다. 우리가 우리 삶을 그분의 목적에 맞출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 그의 성품을 본받는 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만, 겸손, 자비, 사랑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기도 제목

-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라는 1절 말씀을 묵상하자. 우리는 그의 가지이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며 열매를 자라게 하신다.
- 폭풍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지인 우리에게 꾸준히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라가는 친밀함

요한복음 15:7-11 7 너희가 내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메릴 C 테니(Merrill C Tenney)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의 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의 권위를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도를 통해 지속적인 교제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인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질 때, 우리의 기도제목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된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러한 기도는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테니는 이로써 순종과 기쁨이라는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지표이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에는 형통함이 뒤따른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기쁨이 자연스레 우리를 채우게 된다. 이처럼 그리스도안에 거하는 삶은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짐이거나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아니다

기도 제목

- 여호수아 1:8을 묵상하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자.
-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자.

성령님 안에 거하는 친밀함

요한복음 14:15-16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한 이 약속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의 외침이다. 예수님은 23절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새번역)"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다. 말씀을 지키는 근거가 그 명령이 절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요 14:26).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령님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같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누리는 특권이자 은혜이다. (요 7:38-39)

기도 제목

-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을 소망하며 묵상하자.
-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심에 감사하자.
-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 친밀한 관계로,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의 지경으로 인도해주시도록

연역함 가운데 오는 친밀함

누가복음 15:20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입을 맞추니."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우리가 죄된 욕망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또 영혼이 완전히 깨어져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 오셨던 경험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선물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신다(고후 5:17-21).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감찰하시고(시 51:12, 마 26:41),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을 주님의 신부로 보시기 때문이다(엡 4:11-13, 5:24-25). 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춘" 것처럼(눅 15), 하나님은 아직 굳건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신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우리는 수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기도 제목

-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다음 구절들을 묵상하자. (고후 5:17, 엡 2:10, 요 1:12, 벧전 2:9).
-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도 우리의 약함을 멸시치 않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 하나님께 감사하자.
- 하나님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셔서 마음 안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요 3:17-19, 요일 1:5-10).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설 수 있도록.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방해하는가?

마태복음 13:22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가 2: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여우는 밤을 틈타서 포도원을 망치는 교활한 동물이다. 낮에 공격하는 대담하고 강한 사자와 다르게 여우는 작고 민첩하며 약삭빨라서 잡기가 어렵다. 우리 마음의 포도원에 있는 이 '작은 여우'는 두려움, 악한 생각과 언어와 태도, 또 돈과 시간의 낭비 같은 작은 타협들을 의미한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마 13:22), 이러한 타협과 염려가 열매 맺는 것을 더디게 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으라"는 아가서의 외침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다.

기도 제목

-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묵상하자. (롬 8:26-27; 히 4:14-16; 유 1:24)
- 우리 앞의 어떤 장애물들도 기꺼이 없애주실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약속에 감사하자.
-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도록(시 139:23-24).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과감히 제거하고, 익숙하고 편한한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사랑이 부어지다

마태복음 26: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와 마르다 남매와 함께 사는 고아출신 베다니의 마리아로 추정된다. 그 값비싼 향유는 마리아의 결혼 지참금이자, 유산이며 생계를 책임져 줄 자금이었다.

이 헌신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무엇보다 더 큰 가치를 지녔기에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소유를 사랑으로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처럼 정죄받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아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 해도,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박해도 완전한 사랑을 덮을 수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든것 – 우리의 삶과 생명을 포함해서 – 그것은 고귀한 희생으로 여겨질 것이다.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위엄을 드러내셔서 존귀하신 그분께 기꺼이 사랑을 부어 드릴 수 있도록
-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께 그 분의 주되심을 찬양하고 사모하는 것으로 반응하도록
- 교회가 베다니 마리아와 같이 귀중한 것을 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박해에 직면할지라도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헌신을 위한 다짐

요한복음 15: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도록 즉,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을 약속함에 따라 세상은 우리의 적이 되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이단으로 취급 받았고, 사단과 사단의 권세를 쫓아냈다는 이유로 세상에 의해 고소당하기까지 하셨다. 세상은 결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세상은 살인자 바라바를 구하고 예수를 죽였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광신도' 혹은 '예수쟁이'라고 여기거나,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종교적으로 민감한 질문으로 공격한다거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 핍박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이 말씀에 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마 5:10)". 우리의 진정한 처소는 불완전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임을 기억하자.

기도 제목

-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았는지 돌아보자(요 17:16)
-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 그리고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하자.
- 세상이 교회를 위협하고 박해하여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으로 굳게 서도록.

사랑을 낳는 사랑

누가복음 23:33-34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를 알고 계셨다. 또한 예수님은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달고 죄인들과 함께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우리의 주님이시자 본이 되신 예수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자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에서 사랑해야 한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죽기전에 주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덧입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눈을 보며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 제목

- 나를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용서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도록(마 6:14-15).
-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도록(마 5:44-45).
-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누군가로 인한 고난이 닥쳤을 때에 사랑으로 반응하도록(엡3:14-17).

감옥에서 열린 천국

사도행전 16:25-26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박해로 인해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 첫 번째 교회 위에 천국이 열린 것 같이 감옥 문들과 공회도 그러했다. 지구상의 어떠한 힘도 천국의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감옥은 물리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을 막았지만,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국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기도하고 예배했다. 그러자 그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렸으며, 결박이 풀어졌다. 이런 압제의 도구들은 영광의 주님 앞에서 맥없이 부서졌다! 회복과 부흥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능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기도 제목

- 말레이시아 땅에 일어날 부흥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하늘의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자.
- 교회가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고 특히,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널리 전하도록.

기뻐하라!

사도행전 5: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아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웃기 시작했다. 이에 그를 해하던 사람들이 "대체 왜 웃는 것이냐? 너는 죽음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웃으면서 그들을 보고 말했다.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하느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

인간적으로, 고통은 기쁨과 함께 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 넘으시는 분이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식사 중에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제자들이 느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을 어찌 다 이루 말할 수 있을까.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고난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다.

기도 제목

- 하나님을 위해 고난 받았던 일들을 돌아보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하자.
-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예수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자.
- 말레이시아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쁨의 열매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에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영원한 상급

고린도후서 4: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초대교회에는 박해와 순교가 흔한 일이었다. 우리들 중 몇몇은 어느 정도의 핍박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목숨이 걸린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쓴 것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고난의 정도에 관계없이, 바울은 그것을 "경한(가벼운) 것" "잠시 받는" 것이라고 단정한다. 만약 한쪽에 이 땅에서의 손해와 이득, 다른 쪽에 영원한 삶에서 주어질 영광스런 상을 놓고 이 둘을 견주어 본다면 현재 우리가 사는 70-80년의 인생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늘 염두하고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려는 태도는 고난의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당신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것들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천국을 갈망하는가?

기도 제목

-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상급-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으로 인해 감사하자.
- 영원함에 대한 더 큰 계시와, 깨달음,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다가오는 환난을 담대하게 견딜 수 있도록.

승리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은 고통과 눈물, 더 이상의 사망도 없으며 만물이 새롭게 된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 말한다. 그곳에는 어린양께서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어진다고 한다. 그에 앞서 마지막 날에 사탄의 분노로 인해 성도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 두 대조적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이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는 간곡한 권고가 된다. 7절에서 쓰인 "상속"과 "아들"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묵상해 보라. 왕이신 독생자 예수님은 온 세상만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그가 오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날에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계 5:9-10; 19:11-16). 만물의 주가 되신 그를 향해 굳건히 서자!

기도 제목

- 마지막 날에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묵상하자.
- 고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마지막 때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외침이다. 교회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오심을 위해 기도하자.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

요한복음 17장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됨에 대한 가장 깊이 있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의 애통해하시던 기도의 시간은 가장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6-19절에서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셨고, 20-26절은 그를 따를 모든 신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다. 특히 17장 20-26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한 가장 풍성하고, 자비로운 기도이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하나됨에 대한 "영적인 DNA"를 드러내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21절)" 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22-23절)라고 다시 한 번 자세히 기도하신다. 17장 이전의 세 장에서는 이 거룩한 하나됨이 성삼위일체로서 성령 하나님을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신 인격적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다면,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6:18)라는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다.

기도 제목

- 우리를 하나되도록 부르시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이라는 교회의 영적 DNA를 실천하여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되도록

하나됨을 위해 갖추어야 할 성품

하나됨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다른 한 명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성품과 행동에 달려있다(엡 4:2). 존스토트(John Stott)는 사람들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말할 때 보통은 (유용할 수도 있는) 수많은 조직과 체계를 언급하지만 바울은 (그보다 중요한) 도덕적 성품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됨을 위한 다음의 성품들을 살펴보자.

1. **"겸손"**. 이 말은 고대에는 노예와 같이 여겨져 멸시되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심을 보여주는 "겸손한 마음"을 의미한다(빌2:3-8).
2. **"온유"**. 이 말은 가축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려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는 부드럽지만 강함(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높이 평가한 '절제'라는 덕목)을 뜻한다. 겸손과 온유는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존스토트가 덧붙이길)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마 11:29)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다.
3. **"인내"**와 **"용납"** (계속해서 존스토트의 요약을 빌리자면)역시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는 단어이다. 인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러셨던 것처럼 오래 참는 것이다(롬2:4;딤전 1:16). 용납은 서로 베푸는 관용을 뜻하는데, 어떠한 집단도 용납 없이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4. **"사랑"**은 앞서 말한 모든 성품을 포용하며 모든 것에 우선한다. 사랑은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를 온전하게 한다(골 3:14).

기도 제목

-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됨을 소망한다면 겸손, 온유, 인내, 용납, 사랑의 성품을 구하자.
-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 인내, 용납,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운데 부어 주시도록

성숙함이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

바울은 교회의 목적이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첫째로, 에베소서 4:13-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계속해서 그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지라". 이 권면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몸에 비유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구절과 관련이 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지식, 그리고 진실함과 사랑의 균형 없이는 자랄 수 없다. 지체가 건강한 몸에서 분리되어서는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몸은 유기적인 것이지, 독립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 스토트(John Stott)가 말한 것처럼 하나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힘써 지켜야"하고(3절),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13절). 하나됨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써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만,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거룩함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됨에도 단계가 있다"고 한 존 스토트의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기도 제목

- 우리가 속한 교회, 또는 지역 그리스도인 모임에서부터 국제적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서로 연합하도록 돕는 다양한 훈련의 장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그곳이 더욱 연합되어 가도록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에게 몰두되어 자기의 일을 하는 데만 급급한가?

하나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의 구원계획을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셨다.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에 분열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 교회 안에 파벌을 나누는 것은, 성령을 무척 근심하게 하며 그분의 사역을 가로막기까지 한다. 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됨이 거짓이라고 증거하는 격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교회의 간증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낙심하게 하고, 성도와 초신자들을 믿음으로 부터 내모는 일이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강 안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이로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임을 알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이 주께로 나아올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하나됨은 건강한 영적 성숙과 성도의 성장을 이루는 훌륭한 토양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심하여 수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더 빠르게 성취될 것이다.

기도 제목

- 말레이시아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엡 4:13).
- 말레이시아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깨우쳐, 성도 간에 서로를 돌보고 보살피도록

성경적인 하나됨은 획일적이지 않다

사단은 분열의 파괴적인 영향력과 하나되었을 때의 건설적인 효과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려고 애를 쓴다. 초대교회 당시, 사단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 성도들로 하여금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 성도들의 섬김과 관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유대 성도들 스스로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거리를 두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경은 하나됨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첫 번째로, 교리의 일치이다. 성도들은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 세상을 본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를 살아갈 때, 그들이 성경을 통해 이해한 같은 것을 말하고 믿는다. 두 번째로, 마음의 하나됨이다. 성도들은 긴밀하면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모두 함께 나눈다.

하나된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생각이나 행동, 습관을 갖는다는 뜻은 아니다. 성령으로 가능케 되는 성경적 하나됨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경험했을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서 시작된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의 방식만을 주장하지 않는 이 태도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이 성경을 따르도록 훈련시키신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경적인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이는 추구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깊이 일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에 기초가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는 더 중요한 일이다.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요일1:3)라고 썼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과 더 깊고 든든한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믿는 바를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 대해 같은 관점과 이해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깊은 교제는 있을 수 없다. 즉,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기초이다.

비슷한 예로,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스페인 선교사역으로 동원하려 했을 때, 그는 성도들이 믿는 바, 즉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주는 편지인 로마서를 썼다. 바울이 말했듯이, 어떠한 동역 관계에서든지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같은 신학, 같은 믿음이 필수적이다.

기도 제목

-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말레이시아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동역하도록
- 교회간의 연합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성경적인, 예수님을 높이는 진정한 하나됨으로 실현되도록.

다섯가지 사역을 통한 하나됨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분쟁에 대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고전 11:19)라고 말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분열은 생기리라 예상했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진짜 성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불신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교회 안의 분열은 "불가피한" 것이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더 깊이 추구하려고 할 때, 보통은 말씀이나 성경적 교리에 초점을 맞추어 하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권위를 인정하며 그것과 직면해야 한다. 진리인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됨은 없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됨은 모든 교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이다.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엡 4:11)" 부르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고,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하나가 되게(13절)"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전파하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딤후 4:2)" 다섯가지 일에 전심을 다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생각, 한 목소리를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 제목

- 목사, 설교자, 교사와 리더들이 인내와 성실함으로 말씀의 위대한 가르침을 교회에 올바르게 가르치도록
- 말레이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교회, 교단, 기독 단체들의 연합을 위해 일하는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와 비전을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도록

대위임령

마가복음 16:15-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교회는 열방을 변화시킬 복음을 전파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인이다. 말레이시아의 교회는 이 나라 안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말레이시아의 교회는 여러 언어로 말하고 여러 문화가 공존하기 때문에 타 문화와의 소통이 용이하고 민족간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관광 슬로건이기도 한 "진정한 아시아", "다양한 전통 음식의 어우러짐"이라고 기쁘게 외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외롭고 두려움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사랑과 돌봄이 절실한 절망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는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혜와 분별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필사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기도 제목

-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안주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자.
- 말레이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 이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는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관계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자.
-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품고 전도하기 위해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수 있도록.
- 직장, 가정, 학교 등에서 기도모임을 만들고 우리 주변을 거닐 때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열방을 제자 삼다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교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레이시아의 교회는 그 동안 세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일에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을 잘 순종했다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성격적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중요한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관점에 익숙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안주하는 마음과 세상과 타협하는 추세에 맞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벧전2:9)"이다. 교회는 이 세가지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만 한다.

기도 제목

- 제자로서의 사명을 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회복되도록.
- 우리의 자녀, 청소년, 초신자들을 제자 삼아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 모든 지역 교회에서 제자화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 우리의 일상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종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증거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 현재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속한 교회라 할 수 있고, '유대'는 우리 민족이 거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교회는 다언어의 집합소라 할 수 있는데, 주로는 중국어, 힌디어, 영어,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모여있다. (중국어와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인은 말레이시아의 기독인구 중 27%를 차지하고, 인도인은 4.4%를 이룬다.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소수종족 성도는 64%에 달하는데 경제적으로는 가장 빈곤하다.

한 언어 집단의 어려움은 다른 종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여러 종족들이 하나로 연합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가 확산되고, 소수종족-특히 토착민-의 언어와 고유의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 마련될 것이다.

기도 제목

- 헌법이 말레이시아 최고법의 권위를 유지하도록.
- 헌법의 잘못된 해석으로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종교의 자유나 토지 소유의 권리가 빼앗기고 위협당하지 않도록.
- 다양한 언어의 민족들이 연합되고, 그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 각기 다른 민족들의 연합을 위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관계의 장벽이 되기 보다는 하나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 소수민족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문화적 배경을 갖는 소수민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말레이시아 토착민의 제자화

요한계시록 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오랑 아슬리(Orang Asli)는 말레이 종족이 정착하기 이전에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반도(서말레이시아)를 점령했던 토착민 소수 종족들이다. 18-19세기에 걸쳐 해안가의 사람들은 오랑 아슬리들을 물건처럼 거래하고 노예로 부렸다. 이런 이유로 오랑 아슬리들은 도시를 떠나 정글과 고산지대로 더 깊숙이 숨게 되었다.

오랑 아슬리들은 프로토말레이(Proto-Malays), 세노이(Senoi) 그리고 세망(Semang)으로 알려진 세 개의 범주 안에 19개의 언어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중 대부분은 그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들의 부족적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다. 많은 오랑 아슬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의 거주 지역 전체에 걸쳐 교회가 세워져 있다.

1954년의 토착민 법은 오랑 아슬리에게 특별한 법률을 제공했다. 이 법률의 주요 목적은 공산주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5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교회는 오랑 아슬리의 사회 경제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기도 제목

- 정부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오랑 아슬리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 오랑 아슬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유를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장 할 수 있도록
- 젊은 오랑 아슬리들이 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말레이시아 오랑 아슬리 교회가 청년들을 제자훈련 하는 사역을 활발히 감당하도록
- 오랑 아슬리 청년들이 그들의 부족들을 위해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토착민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여호수아 1: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레이시아의 그리스도인 중 64%는 주로 보르네오 섬의 북쪽에 위치한 동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소수종족으로 이들은 말레이시아 기독인구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동말레이시아의 2개의 주 중 사라왁(Sarawak)주 주민의 44%가, 그리고 사바(Sabah) 주의 31.5%가 그리스도인이다. 사바 주의 기독교인은 카다잔두순(Kadazandusun), 무룻(Murut) 종족이고, 사라왁 주는 이반(Iban), 비다유(Bidayuh), 오랑 울루(Orang Ulu) 종족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어, 이것이 사바, 사라왁 주의 그리스도인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그곳 지도자들은 사바, 사라왁 주가 말레이시아 연방에 가입한 이래, 주민들의 이익과 권리, 자치권을 보호하겠다는 말레이시아 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온 사실을 기억하며 이런 움직임에 불안해 하고 있다.

소수부족 지도자들 또한 소수부족의 삶의 터전인 야생지에 공권력을 강압적으로 행사해 온 정부의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례로 페난(Penan), 카얀(Kayan), 켄야(Kenyah)족은 댐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소중한 땅을 빼앗기고 말았다.

기도 제목

- 말레이시아 협정에서 세웠던 사바, 사라왁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우선시 되어 지켜질 수 있도록
- 말레이시아 기독인구의 중심이 되는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소수종족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담대해지고,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깨어 일어나도록
- 사바와 사라왁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 정부가 사바, 사라왁에 거주하는 토착민의 토지권을 보호하도록

말레이시아 청년들의 제자화

디모데후서 2:1-2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모든 세대에게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또 모든 세대는 제자화되어야 한다. 비록 교회가 성장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피상적이며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할 강하고 신실한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게는 필수적인 일이다. 그리고 특히 어린 세대들의 삶에 경건한 성품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에 주력하는 일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제자를 만드는 일은 예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다. 만약 우리가 이를 간과한다면 기독교인들, 특히 젊은 세대가 점차 세속적 관점과 소비주의에 젖어 들고, 세상에 타협하며, 신앙은 자기 만족으로 변질 될 것이다. 젊은 세대를 이러한 수렁에서 건져내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교회가 속히 감당해야 할 일이다.

성경이 제자도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우리의 청년들이 신실함을 갖춘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이다

기도 제목

- 그리스도인들이 기만과 자기만족, 타협과 안주, 중심 없는 종교 행위, 자기중심성, 자족하는 마음, 불순한 생각들, 냉담함 등에서 벗어 나도록.
- 교회가 성격적 기초 위에 그리스도인들을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아 가도록 훈련시키는 노력을 새롭게 하도록.
- 젊은이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풍조에서 돌이켜서 경건하고 신실한 세대로 서도록.
-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를 훈련 시킬 수 있도록.
-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자녀의 영적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땅 끝까지 이르러 열방을 제자삼으라

마태복음 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2011년 중반을 기준으로 350만 명에 이르는데, 그 중 150만 명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며 나머지 200만 명은 불법 체류 중이다. 또 100개 국에서 온 약 10만 명의 유학생들이 거주 중이다. 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 중의 약 8.6%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부당한 대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여러 나라에서 오는 난민들에게 최종 정착 국가로 가기 전 머무는 임시 거처 같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말레이시아인들 또한 전 세계 구석구석을 다양하게 여행한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사업장에 있는 현지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외국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말레이시아에서나 외국에서나 아주 많다.

기도 제목

-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 난민들에게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많은 노동자들, 유학생, 난민들이 성경적 진리 위에 굳건히 서도록.
- 여행을 하거나 해외에서 체류 할 때, 현지 지역 교회를 돕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 말레이시아 교회가 고통 가운데 있는 난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교회와 하나님 나라

"만약 당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엔 당신이 대신 선택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 윌리엄 로(William Law)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근래에 그리스도인들의 대화 속에 흔한 선전 문구가 돼 버렸다. 이 표현의 정확한 사용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왕국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인정되고 지켜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완전하다(시 103:19, 마 6:9-10).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다(눅 17:20-21). 여기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발견된다는 뜻이다. 이 나라는 규모와 상관없으며, 우리가 무슨 언어를 사용하던, 어느 곳에 있든지 제한받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마 6:33).

기도제목

- 마태복음 6:33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기도하자.
- 의식적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도록.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

"가난한 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난하다는 사실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보편적인 아가페 사랑에 있다." – 구티에레즈(Gutierrez)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을 줄 때, 정부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군다. 일반적으로 자격이나 기술 또는 돈을 가진 사람들만이 시민권을 얻는다. 그리고 소수의 나라들만이 난민들을 받아들일 뿐, 대부분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환영한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으며, 더욱이 가난한 자들, 고통 받는 자들, 억압 받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곳이다. 그 이유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눅 6:20)"라는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왜 그런가?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거나 더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아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은 사랑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영적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의도와는 거리가 먼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써(고후 8:9) 그들과 같은 자리에 계셨다.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다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발을 돕는 것도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기도 제목

-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에 감사하자.
-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거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외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기도

마태복음 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호소를 뿌리칠 수도, 우리가 전하는 바는 거부할 수도, 우리의 주장에 반발할 수도,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기도 앞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 J. 시들로우 백스터(J. Sidlow Baxter)

위의 마태복음의 구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기도에 대한 내용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에 대해 말씀하신다.

교회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다. 그 분은 높은 곳에 좌정하시는 분이며, 지혜롭고 정당하게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한 계획과 축복이 교회와 이 나라에 충만해 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 분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 주신다고(마 6:30).

기도 제목

-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항상 완벽하게 통치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한 계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 영성을 훈련함에 있어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토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 제니 허시(Jennie Evelyn Hussey 1874 – 1958)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은 곧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인 것이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대할 수 있다(롬 14:17).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여쭈었는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눅 17:20-21)."

만약 예수님을 삶의 왕으로 모셔 들였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셈이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계신다(골 1:13).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신가?

기도 제목

- 말레이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왕과 그의 나라를 발견하도록.
- 그리스도인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성령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사도행전 14:22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삶에서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라고 선포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삶의 주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

예수님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18:24).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마음에 믿어야 한다(롬 10:9). 그리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에서나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박해가 뒤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충성되게 이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핍박을 피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각지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행 8:1-4).

제자들은 비록 고난 받았을지라도 그로 인해 순종을 배울 수 있었다(히 5:8). 그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고(눅 9:23), 환난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었다(롬 5:3).

기도 제목

-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 십자가 너머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도록(히12:2)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항상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어를 사용하라."
–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Francis of Assisi)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막 1:14-15) 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하시며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복음 선포의 목적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초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것이며, 나라와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복음이 열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열린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기도 제목

-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처럼 영향력 있도록.
-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전쟁중인 하나님 나라

"사단에 맞서 싸워 이긴다는 것은 어떤 강력한 힘이 그를 굴복시킨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의를 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굳세게 할 뿐이다." (딤전 1:18-19, 약 4;7, 벧전 5;9) –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때, 흑암의 권세와의 영적 싸움은 불가피하다.

육신의 눈으로는 영적 전쟁의 실재를 볼 수 없다. 바울은 이에 대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 6:12)고 했다.

우리는 전쟁에 속한 자로서 영적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한다. 이 땅 말레이시아를 기도로써 지켜내자. 이를 통해 이 나라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 영적인 승리를 취해야 한다. 전쟁에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자(엡 6장).

기도 제목

- 말레이시아의 성도들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어떤 공격에도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헌신하도록.
- 언제나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요 15:7),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도록.
-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수 1:7).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마태복음 5: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소금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서 이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가진 믿음, 가치관, 헌신 등이 우리의 기호와 말과 행동과 생활 방식에 그대로 반영되듯이 이 사회에도 그와 같은 영향을 끼쳐야 한다. 특히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와 타락의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나타난다.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다면 음식에 아무런 맛을 낼 수 없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은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갖는 거룩한 모임에서 나와 사회에 속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들과 관계 맺고 그들에게 예수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이다.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필요하다. 한 사회의 풍조를 뒤바꾸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소금"이 필요할 지 추측해 보라. 데이비드 포슨(David Pawson)은 단지 5%면 충분하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의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약 9%로 이들은 사회의 각 영역에 퍼져 있다. 어떤 영역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각 사람이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 제목

-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사회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익보다는 거룩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며, 우리가 속한 곳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 기독교인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불의에 대하여 담대함으로 맞서되 사랑과 겸손을 잃지 않도록.
- 아직 참여가 미비한 정치와 교육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이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여, 응집력 있는 영향력을 이 나라에 미칠 수 있도록.

NECF MALAYSIA

Prepared & Compiled by NECF Malaysia
32, Jalan SS2/103, Petaling Jaya
47300,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Tel:03-77278227 Fax:03-77291139
Email:prayer@necf.org.my
www.necf.org.my